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1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29일 (음력 4월 15일) 화요일

전남도, 지자체 최초 AI 방역체계 개선 착수

전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전남도청에서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대학교수, 국립축산연구원, 국립수목원 등 축산·방역 전문가와 AI 비발생 오리농가 등 25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매년 고병원성 AI 반복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소득안정자

도청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내달말까지 실시

전문가·관계공무원 지속적 자문 통해 수정 보완

급 등 막대한 재정 손실과 살처분 가족의 매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 능가별, 연도별 원인분석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축사의 시설 업그레이드

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고병원성 AI 선제적 방역시스템 구축 등 전반에 걸쳐 분야별로 전문가의 제안을 듣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의 지

속적인 자문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용역시행업체를 통해 완료시까지 수정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종화 국립축산진흥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오리 주산지인 전남지역에서 더이상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형 축사 개선 등 근본적인 오리 사육 환경과 방역 정책을 제시토록 하여 고병원성 AI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귀감

정의당은 28일 전격적으로 열린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며칠 간 급격하게 출렁인 한반도정세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추혜선 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북미 양 정상회담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아예 정상회담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둘러 아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는 남·북·미 3자가 확고한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을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추 수석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의 대성공을 위해 가져야 했을 신동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수석대변인은 "국제 정상회담은 남북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멀지 않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시스



남해화학, 노사화합·상생 위해 '소통'

한국노총 전남본부 초청간담회 갖고 발전 다짐



남해화학(대표이사 이광록)은 지난 24일 회사 교육장에서 노사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공동이익이 증진되는 상생적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해화학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전남본부 이신원 의장을 비롯해 집행부 간부들이 초청됐다.

이광록 대표이사는 "남해화학 노동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원만한 노사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과의 대화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경청하고 있으며 조합의 요구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선 노조위원장은 "회사와 공존하는 건설적인 노동조합으로 거듭 날 것이며 사용자 측이 감동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으로 근로자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보람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은 물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전남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남해화학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전남지역 많은 노사가 남해화학을 본받아 미래 지향적으로 노사관계의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해화학(주)은 1974년 창사 이래 농업인에게 고품질의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발전 및 식량자급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2016년 5월 본사를 서울에서 여수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호남지역 대표기업이다.

또한 노사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실천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2013년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 2016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최남규 기자

"선거는 축제, 투표합시다"

전남선관위 다채로운 캠페인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다양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우리가 꿈꾸는 내일, 투표로 실현하세요'를 주제로 지난 25일 '순천대하'를 시작으로 전남 6곳에서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고 공감하는 '선거주크박스'와 함께하는 문화와 선거가 있는 '우리 동네' 거리공연을 했다.

이번 행사는 유권자를 직접 찾아가는 거리공연을 통해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전남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동네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는 DJ박스가 설치된 트럭을 지방선거 홍보내용으로 래핑하고 DJ 선거 토크로 진행됐다.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7일 '함평 5일장' 이용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홍보캠페인을 했다.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정보를 안내하고, 투표를 제고를 위해 일대일 대면 홍보했다.

특히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잘 비교·평가해 선택할 것을 호소했다.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8일 후보자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곡성의 꿈(정책) 실천다짐 및 거리퍼레이드' 행사를 개최했다.

이름다운선거 행복한 우리동네와 '선거는 축제'는 캐치프레이즈 걸고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함께 어우러져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기원하는 풍물놀이(판굿) 거리퍼레이드를 펼쳤다.



값싸고 질 좋은 장흥한우

